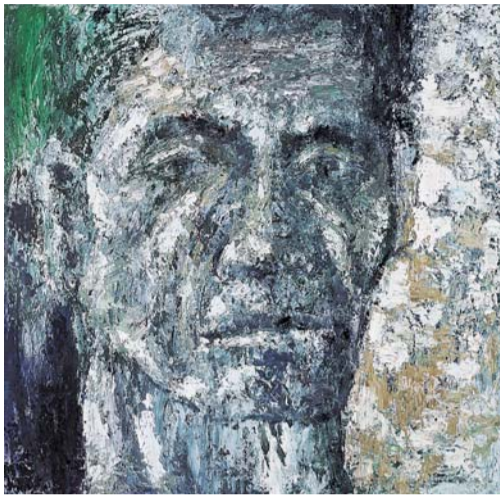


영산강, 남도 문화를 싣고 흐른다

제2회 영산강문화제 내달 한 달간 광주 영산강문화관서 전시·음악회·문학기행·문화강좌·영화 상영 등 다채

영산강문화제 문화

‘영산강 상류에 가서/우리 어머니 빨래터에/ 앉아 보아라/ 물 속에는/ 송사리며 물려가고/ 그 사이사이/ 미소 띤 우리 어머니가/ 세상살이 그늘은 / 귀신같은 네 얼굴을/ 맞이하더라’ (최규창 ‘영산강’ 중)



한희원 작가가 그린 문순태 소설 ‘타오르는 강’의 주인공 웅보.

‘남도의 젓줄’ 영산강 구비구비엔 절절한 역사와 그 시대를 살아온 민초들의 사연이 담겼다. 힘든 이들을 어루만지고 묵묵히 지켜봐 온 영산강은 남도의 문화예술을 이태한 산실이기도 했다.

광주시 남구 송촌보에 자리한 영산강 문화관(관장 장희정)은 영산강 물줄기를 따라 형성된 남도의 문화와 자연을 근간으로 영산강의 정체성을 빛내고 특화된 문화 콘텐츠 개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영산강문화제’는 유서깊은 남도 역사, 사회, 정치, 종교, 민속, 문학, 미술, 음악, 건축 등 다양한 문화예술과 인문적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2017년 시작한 기획으로 지난해 행사 주제는 ‘민속’이었다.

제2회 영산강문화제가 10월1일부터 31일까지 광주 영산강문화관에서 열린다. 올해의 주제는 ‘문학’으로 잡았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의 영산강은 그 내력에 걸맞게 걸출한 문학작품과 문학인을 배출했다.

한달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시, 음악회, 문학기행, 문화강좌, 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메인 행사는 2층 전시실에서 열리는 ‘영산강문학전’이다. 영산강을 소재로 창작된 문학작품을 소개하는 전시로 송순의 ‘성산별곡’ 등 가사 작품을 비롯해 소설, 시 등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작은 면암정가(정철)·‘석촌별곡(정해정) 등 가사(歌詞) 문학을 비롯해 ‘이영녀(김우진), ‘타오르는 강’(문순태), ‘홍수전후(박화성), ‘연화도수(송지행), ‘방앗갈혁명·기난한 형제(오유권),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립니다’(이상문), ‘영산강(이상권), ‘육단어!(차범석) 등의 소설이다. 또 서사시 ‘영산강(김해성), ‘나의 영산강(문병관), ‘영산포(나해철), ‘영산강 처녀(홍관희), ‘영산강(최규창), ‘영산강-3(김종) 등의 시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이번에 소개되는 작품의 저자 역시 대부분 영산강을 근간으로 성장한 작가들이다.

전시는 문학작품의 일부(또는 전체)와 관련 자료를 함께 선보여 관람객들이 작품과 작가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문학작품을 소재로 작업한 박행보·한희원 작가의 회화작품도 전시했다. 한 작가는 문순태 소설 ‘타오르는 강’의 주인공 ‘웅보’를 두터운 붓터치로 그렸다.

또 주동후 작가의 ‘광주전남소설문학사’를 참

고해 생오지문예창작촌, 시문학파기념관 등 지역 문학 공간과 광주·담양·장성·나주·무안 등 지역 작가들을 소개한 ‘영산강문화지도-문학’도 전시한다.

6일 오후 2시 영산강문화관 야외공연장에서는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1부 영산강 문학콘서트는 시낭송, 노래 공연, 소설 낭독 등으로 구성된다. 문규리·황철호씨가 ‘영산강 처녀’, ‘목포의 눈물’ 등 영산강을 소재로 한 대중가요를 들려주며 ‘영산강’ 등의 시를 나신웅·전숙 씨가 낭송한다. 또 동신여고 연극동아리 ‘아로’가 박화성의 단편소설 ‘샌님마님’을 낭독극으로 선사한다. 2부는 마당극 공연으로 아트 컴퍼니원의 ‘뽕파전’을 만날 수 있다.

이어 오후 4시 문화관 2층 전시실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다룬 나문화·이재훈 주연의 영화 ‘아이 캔 스피크’를 상영한다.

영산강 일대의 문학을 현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문학기행도 마련된다. 송순·정철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담양의 한국가사문학관을 비롯해 박화성·차범석 등의 소설과 희곡이 전시된 목포문학관, 나주 백호문학관 등을 찾아 전통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영산강의 문화지위를 살펴본다.

20일 문화관 3층 교육실에서는 문화강좌가 열린다. 백애송 광주대 초빙교수가 진행하는 ‘강을 따라 만나는 우리네 삶의 이야기’는 이수행의 ‘영산강1-구진포, 최하림의 ‘겨울초상화’. 이성부의 ‘우리들의 양식-전라도 7’ 등 영산강이라는 공간이 문학작품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살펴본다.

또 ‘나주 옛이야기에서 배우는 글쓰기와 말법’(김찬관 광주대 초빙교수)은 ‘미영과 모시와 삼베’ 등 영산강 나주 지역의 이야기꾼이 들려주는 옛 이야기를 통해 ‘담차다’, ‘제지기’ 등 나주의 옛말을 배워보는 강좌다.

개별행사는 문화관 카페(cafe.naver.com/yeongsanga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1-335-0866.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영산강 일대의 문학을 현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문학기행도 마련된다. 위부터 담양 가사문학관, 나주 백호문학관, 목포문학관.

● 찾아오시는 길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송정리방향 일곡38번(30분) → 송정리역에서 196번, 160번(15분) → 노안남초, 해송정 정류장에서 (도보 15분) → 도착
- 나주종합버스터미널**
광주방향 160번 (30분) → 쌍지공원 정류장 하차 (도보 10분) 도착
- 광주광역시 남구 송촌보길90(송촌동 573-7)
061) 335-0866



영산강 문화관

시민 참여 연극 ‘학문외과’ 무대에 희망문화협동조합, 28·29일 예술극장 통

희망문화협동조합이 코미디 연극 ‘학문외과’를 오는 28일(오후 7시 30분)과 29일(오후 3시 6시) 광주시 동구 호남동 예술극장 통 무대에 올린다. 이번 작품은 전문 배우와 시민참가자가 함께 만드는 연극으로 광주문화재단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진행됐다. 지난 2015년부터 시민연극교실을 무료로 운영해 오고 있는 희망문화협동조합은 참가자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매주 한 차례 교육을 열었다. 교사, 사업가, 직장인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참가자들은 연출가 양정인씨로부터 연극의 기획부터 공연까지 전 제작과정을 배웠다. 이기인씨가 극본, 양정인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김윤아, 류영숙, 강연홍, 배선주, 오주섭, 강



연극 ‘학문외과’ 연습 모습.

미선, 김선희씨가 출연한다. 이 연극은 작은 병원을 배경으로 치질을 앓고 있는 네 여자가 만나 생김 일을 재치있게 그려내고 있다.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인물들이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보듬어 주는 이야기를 담담한 웃음으로 풀어낸다. 전석 무료. 문의 010-3615-9480.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적벽가, 1950’ 공연 모습.

6·25 학도병을 위한 진혼곡

국립남도국악원, 28일 음악극 ‘적벽가, 1950’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28일 오후 7시 국악원 진악당에서 음악극 ‘적벽가, 1950’을 공연한다.

싱어송라이터 찬브로가 이끄는 ‘찬브로 스테이지’를 초청해 여는 이번 공연에서는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학도병의 이야기를 다뤘다. 이는 전쟁 속 영웅이 아니라 이름 없이 죽어간 젊은 병사들을 위한 진혼곡으로, 판소리와 대중음악의 새로운 결합으로 담았다.

이번 무대는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전쟁발발, 전시상황, 종료, 현재, 에필로그 총 6장으로 구성되며, 동서양 음악이 조합된 10곡으로 진행된다. ‘군사시설타

령’을 중심으로 가족을 두고 전장에 나온 병사들의 격정과 슬픔을 그리고 ‘불지르는 대목’을 통해 수많은 이가 죽어가는 참혹한 현장을 묘사한다.

박현서씨가 연출·대본을 맡고 찬브로가 음악감독을 하면서 의용병으로 출연한다. 김수지(소리꾼), 진창주(사관생도), 김명섭(학도병)씨 등이 무대를 꾸민다.

무료 관람이며 공연 당일 오후 6시 20분 진도읍사무소, 6시 35분 십일시 사거리에서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문의 061-540-4031-3.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2018 신양파크호텔

객실 리모델링 기념

가을축제

기간: 2018. 9. 1(토) ▶ 11. 30(금)

축제 1 **객실 가을 패키지**

객실 리모델링 기념
가을 패키지 **60% DC**

축제 2 1층 레스토랑 ‘테마니’ 스파게티 & 스테이크 축제

커피	3,000원
스파게티	13,000 ~ 16,000원
스파게티 코스 (스프+샐러드+스파게티+커피)	22,000원
돈가스 코스 (햄+스프+샐러드+돈가스+디저트+커피)	18,000원
안심스테이크 코스 (햄+전채요리+스프+샐러드+스테이크+디저트+커피)	50,000원

축제 3 **신양파크호텔 사우나 이용권 증정**

1층 티파니 이용고객 ₩15,000당
사우나 이용권 1매 증정
(연회장 및 조식 이용 고객 제외)



신양파크호텔 예약문의 ☎ (062)228-8000, 221-4101